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의 힘



홍 경 안 의
시시일각

2025년 기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31명이다. 반면 한국은 평화상과 문학상 단 두 명이다. 과학상으로 한정하면 스코어는 더욱 벌어진다. 일본은 1949년부터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메달을 땀다. 올해만 ‘노벨 2관왕’을 기록했다. 한국은 여전히 ‘0명’이다. 후보로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왜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연구의 시간’을 우리 사회가 견디지 못한다는데 있다. 기초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의 연구 환경은 한 과학자가 20년, 30년에 걸쳐 하나의 주제를 파고들 수 있도록 설계된다. 시간은 단절되지 않고, 축적은 곧 공동의 유산이다. 이것이 노벨상의 토대가 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의 연구 시스템은 다르다. 대부분의 과제가 단기로 제한되고, 평가와 보고서, 실적 중심의 체계가 지배한다. ‘깊이’에 앞서 ‘속도’가 우선되다보니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 공모에 응해야 한다. 한국의

미술창작레지던시 제도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과학계처럼 이곳도 상시적 갱신의 습관화가 고착되어 있다.

레지던시는 예술가에게 일정 기간 창작 공간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초 예술 증진과 장기적 창작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선발해 다양한 실험 및 교류를 지원하여 거목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존재의 이유다. 그러나 이들의 다수는 공모, 심사, 입주, 결과발표 전시를 잇는 단기형 ‘순환 이벤트’ 공간이기 일쑤다.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레지던 시도 마찬가지다. 예술가들은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기껏해야 1년 남짓 체류할 수 있다. 그기간 동안 결과 전시와 보고라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입주 작가 결과전이 종료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즉, ‘리셋(reset)’ 된다.

과학에서 노벨상이 기초연구의 결실이 라면, 예술에서도 기초예술의 개념은 필수적이다. 여기서의 기초예술이란 드로잉 연습이나 조형요소와 원리 따위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결말을 전제하지 않은 탐구, 당장의 완성보다 연구의 시간을 통한 ‘과정의 사유’를 중시하는 창

작을 뜻한다. 레지던시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어쩌면 그것이 본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술정책은 이 개념을 제도화하는데 무관심했다. 예술가의 시간을 과정의 사유로 채울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다년형 체류 프로그램이 요구될 뿐더러, 과정 중심의 평가와 입주 이후의 후속 연구 지원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나아가 실패의 기록이나 기억의 연결까지 미학적 자산으로 삼도록 장려해야 맞다.

현실은 판이하다. 연구의 시간을 ‘기한의 시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일부 공공 레지던시에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역 경제 활성화나 도시재생, 관광의 도구로 소비한다.

한국이 과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전혀 없는 이유나 한국의 레지던시가 세계적 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또는 레지던시를 통한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배출되지 못하는 배경엔 ‘시간의 가치’에 소홀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정의 사유에 인색하고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다. 이제는 기초과학이든 문화예술이든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의 힘을 믿어야 할 때다. 지난 76년간 일본이 그러했듯 말이다.

/미술평론가

車업계, 정부 정책 속도 맞추다 붕괴될 수도



기 자 수 첩
양 성 운
(산업부)

“자동차 부품 산업은 한 번 시스템이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친환경차의 등장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제조 업체가 느끼는 위기감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전

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향후 10년간 840만대를 보급해야 한다는 목표치를 세웠다. 하지만 이는 친환경차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수치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국의 누적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8월 기준 82만여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10만대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겨우 80만대를 넘어섰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배터리 안전과 충전 인프라 문제로 전기차 보다는 하이브리드차량의 판매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탄소 감축을 목표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전기차의 판매를 확대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리고 있다.

수십년간 내연기관 부품을 개발해온 부품 업체들은 당장 전기차 부품을 생산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1만여 개 국내 부품사 중 45.2%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해당 기업 종사자는 11만5000명에 달한다”며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뒤 전기차만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장 투자를 늘려 3년 뒤부터는 제품 전환을 해야 하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과도한 목표 설정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고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5일 (음 8월 24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조금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온다. 48년생 형제의 방문으로 근심이 쌓인다. 60년생 승진 누락에 상심 말고 외국어 공부에 도전. 72년생 고부갈등으로 서로 미워하게 된다. 84년생 손해가 났어도 다시 분석하여 깨닫자.



소

37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게 된다. 49년생 판단력이 떨어지는 날이니 이혼 도장은 다음으로 미루라. 61년생 실력 없이 잘난 척 마라. 73년생 언행이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뒷말. 85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호랑이

38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빨리 포기하자. 50년생 내가 웃으니 거울도 따라 웃는다. 62년생 실력 발휘가 되니 조직에서 영입 이득이 발생한다. 74년생 초자연에 꿈을 꾸니 잠을 설치. 86년생 원숭이띠와 의견대립을 조심.



토끼

39년생 바람이 불어와도 움직이지 마라. 51년생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있다. 63년생 기쁨 근심은 양면. 75년생 감언이설에 반은 의심해 볼 것. 87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시간도 많고 세상도 넓고 누구 말대로 할 일도 많다.



양

40년생 명심보감에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52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은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64년생 일찍 귀가하자. 76년생 집 짓는 일에 나서다가 일을 그르치니 조심. 88년생 모 아니면 도인 것이 인생이니.



뱀

41년생 공상의 거품은 사라지고 아쉬움만 남는다. 53년생 내가 모르는 분야를 모른다고 인정해야. 65년생 능력을 과신하다가 실수. 77년생 습관의 나쁜 폐단은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89년생 신념을 가져야 목표에 닿을 수가 있을 것.



말

42년생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는 꼴볼견. 54년생 물을 두려워하면 수영선수가 되기 어렵다. 66년생 실질적인 힘을 쓰도록. 78년생 일의 순서에 억지로 주장을 펼치지 않도록. 90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할 것이다.



양

43년생 재물이 들어오니 위로가 된다. 55년생 배우자가 될 인연이 이어진다. 67년생 싫다고 다 내뱉으면 누가 내 곁에 남아 있었는가. 79년생 나이 먹어 가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다. 91년생 핑크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해보자.



원숭이

4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즐거움이다. 56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68년생 개천에서 용이 나는 꿈을 꾸어 행운이다. 80년생 동업자와 뜻이 맞아야 영업에 이득. 92년생 좋은 일은 자랑해도 이해가 되겠으나.



닭

45년생 시작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57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지 마라. 69년생 이제라도 감추위에 맞서는 노력을. 81년생 재물 늘고 손뼉을 치면 웃을 일이 생긴다. 93년생 매일 뜨는 태양도 누군가는 다시 보길 간절히 원한다.



개

46년생 이제라도 최소 한 가지 일에 능통해 보자. 58년생 지난 일은 잊고 내일 일을 챙겨라. 70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82년생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한심. 94년생 삼재팔난이 아니어도 말로 인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돼지

47년생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대비. 59년생 이득을 보고자 함에 내 뜻만 관찰 수는 없다. 71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니 겸손을. 83년생 무슨 일든 다시 찾아 도전. 95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하는 준비가 있어야.

김상회의四季

지리산, 민족의 정기



한반도 남녘에 우뚝 솟아 있는 지리산은 남한에서 가장 넓고 웅대한 산맥으로 알려진 지리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넉넉하면서도 강력한 정기를 품고 있다. 백두대간의 남쪽 끝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한반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처럼 서 있는 산이다. 지리산은 풍수지리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산의 기운이 수천 리를 내달려와 지리산에서 그 힘을 응축하고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풍수지리에서 산줄기는 용맥이라 하는데, 지리산은 그 용맥이 힘차게 내려와 뿌리를 내린 곳이다. 지리산의 기운은 단단하고 깊으며 그 품이 넓어 수많은 생명과 사람을 품어왔다. 그래서 지리산은 예로부터 영산으로 숭앙받았다. 지리산의 정기를 언급한 기록을 옛 문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옛사람들은 지리산의 정기가 워낙 크고 강하여 산자락에 명당이 많다고 했다. 그 명당의 핵심에는 혈 자리가 있다. 혈 자리는 산과 물의 기운이 모이는 지점으로 집이나 절 혹은 무덤을 쓰면 복과 번영이 깃든다고 했고 실제 그렇다. 지리산의 골짜기마다 굽이치는 능선은 마치 용이 꿈틀대는 듯한 역동적인 형세를 보이며 그곳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혈 자리가 맺혀 있다. 지리산 자락의 혈 자리는 맑은 기운이 넘치고 안정적 형세여서 그곳에 자리한 마을과 사찰은 끊어지지 않는 생기를 이어왔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은 강한 정기 때문에 수난을 겪기도 했다. 지리산의 정기가 독립운동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곳곳에 쇠말뚝을 박은 것이다. 풍수지리 이론을 알고 있던 일제는 산의 정기가 모이는 혈 자리를 찾아내고 그곳에 쇠말뚝을 받았다. 쇠말뚝으로 혈맥을 끊으면 산의 정기가 약해지고 훼손되리라 생각한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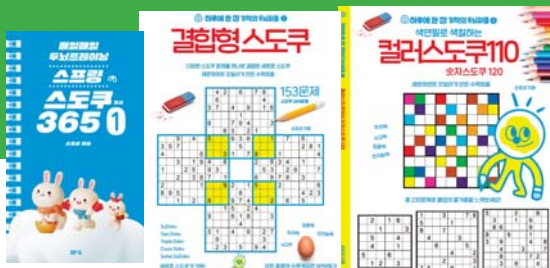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9	8		5		4	2	
2	4	3		8				
			2					
		2				6		7
	1						6	
5		1				9		
					3			
				4		1	8	2
	2	5		9		7	4	3



2		6		1	5		9	8
			1	9				
			2	4		1		
6				7	8			
			8	6	4			
			6	2				7
		5		8	1			
				5	9			
8	2		4	3		6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레아티브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2	1	6	9	5	2	8
2	8	1	9	7	5	2	8	6
9	6	8	2	7	9	2	1	
7	6	2	1	8	1	9	9	
8	9	2	5	2	2	6	1	7
2	9	9	7	1	6	2	8	2
6	1	2	8	9	2	7	9	2
9	2	9	6	8	1	2	7	2
1	2	7	2	5	2	8	6	9

1	9	9	2	2	6	2	8
2	2	8	6	9	2	7	1
9	2	1	8	6	5	7	2
2	1	6	2	9	8	1	9
6	1	9	7	9	8	2	2
7	2	2	8	2	5	1	6
2	8	1	9	7	2	2	9
9	9	2	6	1	2	8	7
8	6	7	9	1	2	9	2